



경인문화사의 한정희 대표(左)와 편집부, 영업부 직원들. “우리 모두는 한 식구”라는 마음가짐의 가족적인 분위기는 고된 출판작업으로 밤을 새 때도 든든한 힘이 된다. 사진을 찍은 이 날도 직원 한 명이 빠졌다며 못내 서운해 했다.

# 한국학, 그 ‘불변의 가치’ 지켜내는 영인본의 명가

##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책’ 출간에 심혈

영인본影印本 전문 출판을 시작으로 경인문화사가 걸어온 출판 나이가 마흔을 넘었다. 1965년 11월 8일, 한상하(73) 회장이 영인출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특히 93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한국역대문집총서’ 3,000권은 경인문화사가 이뤄낸 굵직한 성과다. ‘우리의 책’을 만들고 ‘시대에 남을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 회장의 웅골찬 다짐의 결실이기도 하다. 88년 외아들 한정희(41) 씨에게 출판사를 물려준 이후로도 경인문화사는 한 회장이 걸어온 길과 가치를 거스르지 않는다. 한 대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영인본 출판에 손을 놓지 않는 한편, 학술서적 출판에도 힘을 쏟고 있다.

### 학술서적출판, 한국학전문서점 운영…국내 영인본 모두 구비

“한국역대문집총서가 영인본에 주력하신 아버지의 결실이라면 저

는 이와 함께 한국학과 관련된 학술서적을 기획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인본자체가 한국학의 1차적인 콘텐츠니까요. 연관되는 일을 하며 경인문화사만의 고집과 색깔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한정희 대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을 꾸려가기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 고서古書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영인본 출판에 힘써 온 아버지의 의지를 꼭 빼닮은 듯하다. 그가 출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역사, 곧 한국학 연구다. 이미 그것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이 다수 간행된 상태다.

특히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한일관계사료집성》(전 32권)을 발간하였고 현재는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를 기획·간행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처럼 학술서 위주로 출판하다보니 시장성

은 거의 전무한 상태. 역사 과목이 대학에서 교양선택으로 바뀌고 사학과가 위축되는 추세여서 그나마 교재용으로 팔리던 책들도 줄어들었다. 한 대표는 “대학에서 조국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라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3,000권을 출간한 한국역대문집총서는 일말의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대학에 한 질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인데도 정작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자료를 선택하는 수준을 봐도 국내교수보다는 일본 교수들이 더 뛰어납니다. 책을 팔아도 기분 좋게 파는 게 아니에요. 위기감은 떨칠 수 없죠.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문화도 우리 것을 선점당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경인문화사는 창립 당시 사옥 1층에 한국학전문서점을 함께 열어 한국학, 사회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영인본을 모아둔 서점으로는 유일해 국내에서 나온 영인본은 대부분 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소문을 듣고 교수들의 지시를 받아 이 곳을 찾는 일본 학생들도 제법 많다. 책을 골라가는 수준도 평균 이상이다.

### 학회 공동기획 각종 총서 발간, 편집실명제 실시

현재 경인문화사는 여러 학술 연구단체와 협력하여 ‘경인한국학연구총서’ ‘목포대학교 도서관화 연구소 도서해양연구총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총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등의 사회학, 인류학과 관련된 각종 총서 시리즈를 간행하고 있다. 편집부 신학태 부장은 “활자매체의 출판은 시대가 가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는 한 대표의 지론에 따라 ‘시대가 지나도 남는 책’을 출판하는 데 의의를 둔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11월에 출간한 ‘한일문화강좌’ 시리즈는 올해 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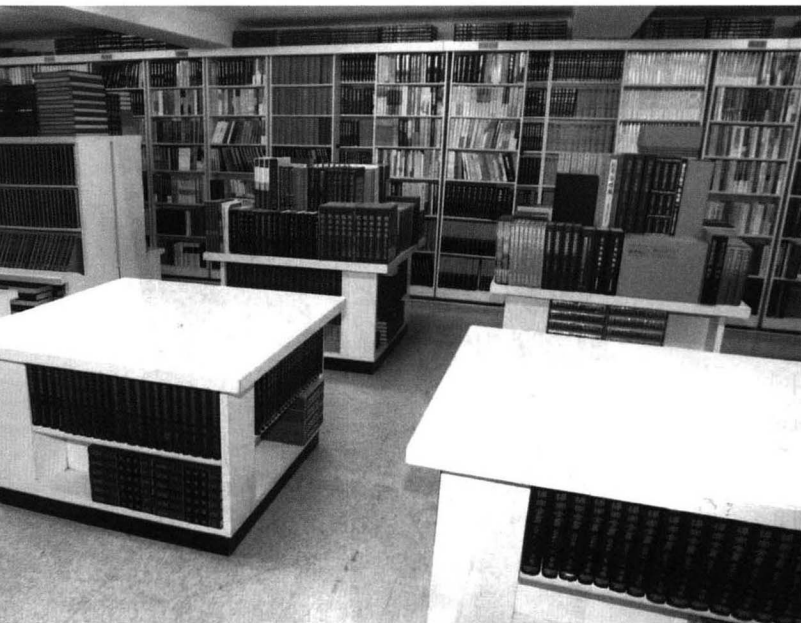
‘우리의 책’을 만들고 ‘시대에 남는 책’을 만든다는 소명으로 출판한 경인문화사의 책들

권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강좌 타이틀로 세 권이 출간됐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총서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에요. 한데 묶어 총서식으로 기획한 것은 분산된 자료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경인한국학연구총서’는 주로 학회와 관련해서 작업을 진행했던 이전의 작업과는 달리 경인문화사에서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20권 정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원고검열로 총서의 가치를 높이며 현재까지 마흔 번째 책을 출간했다. 편집 과정에서 아쉽게 누락된 원고는 저자와의 협의하에 단행본 형태로 출간된다.



학술 단체와 협력해 사회학, 인류학과 관련된 각종 총서를 간행하면서도 독자적으로 ‘경인한국학연구총서’를 기획한 경인문화사는 꼼꼼한 원고검열로 그 이름의 가치와 질을 높이고 있다.



1956년 창립과 함께 사옥 1층에 문을 연 한국학전문서점, 한국학, 사회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과 영인본을 구비한 서점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자료를 구해가기도 한다.

“이러한 총서가 학술원이나 문광부에 우수도서로 선정돼야 저자 인세도 받을 수 있고 좋은 논문이 실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단하지는 않아도 주목을 받고 있어 보람도 느끼고 성과도 기대됩니다. 갈수록 총서의 질을 높여 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밤을 새는 고된 작업이 이어질 때면 팀 내 분위기와 화합도 간과할 수 없다. 경인문화사는 ‘가족 같은 경영’을 모토로 영세성이 짙은 출판의 비포장도로를 경인문화사라는 한 차를 타고 함께 가고 있다.

또한 각자 편집한 원고가 판권에 개인의 이름으로 실리는 형태인 ‘편집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 직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질적으로 우수한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 경인문화사의 지적 소명, ‘한국학의 모든 것’

88년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 때부터 한 회장이 경인문화사에 발길을 끊은 것은 아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켜오며 한 대표를 돕다 손을 뗀 것이 불과 3년 전이다.

“보통 2세 경영의 사업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출판사도 2세 경영에 들어가면서 무너진 곳이 많아요. 상업성에 눈이 멀어 독자들의 입맛에 맞춘 책들만 내다보니 주객이 전도되기에 이른 것이지요. 한 대표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출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일을 추진해가니 직원들은 그 소명에 맞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문화사가 한국학이라는 한 우물만 파 올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학의 모든 것’ 이랄 수 있지요.”

한 대표와는 네 살 터울이어서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그만큼 또 배우기도 한다는 신 부장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출판정신. 편집자는 좋은 필자들의 원고를 어떻게 보기 좋게 꾸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읽힐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서비스업종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편, 한 대표는 작년, 출판협동조합 이사에 최연소로 취임하며 출판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옹운 목소리를 그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과 포지션을 잃지 않는 출판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오래도록 가난하면서도 꾸준히 일하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출판계에 접근하는 대기업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결국 이들이 출판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연 출판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한 대표의 의견에 신 부장도 동의하는 바다. 아울러 신 부장은 “작금의 지적 경향은 근·현대사에만 온통 쏠려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국가적 지원과 임시방편의 처방이 결국 시대 흐름에 편승하며 가벼운 책들만을 내놓는 출판사를 키웠다”고 일침을 가했다.

출판이 한 시대에 문화의 획을 긋는 막중한 책임감을 알고 출판사는 그것에 따른 나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경인문화사는 그 중심을 향해 다가가며 출판계,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신의 ‘핵’을 지닌 곳으로서 날로 새로운 행로를 거듭할 태세다. **✎**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